

### 제 5 강 이스라엘의 언약: 파트 3

#### I. 메시아에 대한 소망

- A.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초기부터 이 열방의 구원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통치자 아래에서 일어날 것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 분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의 성취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 B.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열망은 구약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기름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 공의를 가져오며,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 C. 야곱은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다. 이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열방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 왕이 올 때, 이스라엘에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

<sup>10</sup>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 49:10)

#### II. 미래에 오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언약)

- A.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으로부터 이 구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기에, 신학자들은 이를 다윗 언약이라고 부른다.
- B. 다윗 언약은 메시아이신 왕의 정체성과 그분의 임무, 또 이 임무가 어떻게 성취될 지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기에 매우 중요하다.
- C.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다섯 번째 언약이다. 이 언약은 다윗과 개인적으로 맺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언약은 **승리의 언약(Covenant of Triumph)**으로도 불리는데,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대적을 향해 승리하시고 온 땅을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 D. 이 언약의 약속들은 다윗과 그의 왕국에 주어졌지만, 나라 전체에 대한 약속들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 영원히 있을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에 대해 약속하시며 이 왕국이 땅에 임할 실제적 통치가 있는 왕국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 E.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새 언약을 선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전 세계 구원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사용되는 부르심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sup>5</sup>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sup>6</sup>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렘 23:5-6)

- F. 다윗 언약의 약속들은 삼하 7:11-16 절,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 17:10-15 절에 나와 있다. 또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하고 있다 (삼하 23:5; 대하 7:18; 21:7; 시 89:3-4, 28-29, 34-37; 렘 33:19-26).

<sup>8</sup>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sup>9</sup>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sup>10</sup>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sup>11</sup>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sup>12</sup>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sup>13</sup>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sup>14</sup>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sup>15</sup>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sup>16</sup>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sup>17</sup>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삼하 7:8-17)

- G.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으며, 다윗은 여기서 다윗 가계와 왕조의 대표격의 역할을 한다. 다윗 언약은 본질상 무조건적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윗과 맺으시며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 이 약속들의 성취 여부는 오로지 자신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부분이었다.

III. 다윗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이 언약을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1) 자손이 영원할 것이며; 2) 왕국이 영원할 것이며; 3)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 하나가 왕위를 이으며, 그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약속하셨다. 이 약속들은 구약의 여러 곳을 통해 명확히 재확인할 수 있다.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 89:4)

6...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7)

A.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것임

11 ...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 ...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6)

여기서 나오는 δ집 또는 씨δ라는 단어는 다윗의 직계 자손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약속하신다. 이는 다윗의 육신의 자손들이 항상 계속 존재할 것에 대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시편 89 편과 대하 21 장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3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 89:3-4)

7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한글 KJV: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대하 21:7)

B.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임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 (삼하 7:12, 16)

1. 다윗의 왕국은 실제적인 영역에 대한 다윗의 통치를 의미한다. 다윗의 통치의 영역에는 물리적인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된다.

- 2.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다윗의 왕국(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비록 계속해서 존재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거룩한 약속은 다윗의 왕국이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되어 존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3. 유대인들이 다윗 왕조가 없어진 지 몇 세기 후에도 여전히 **그 왕국**(혹은 나라)이 메시아를 통해 물리적으로, 또 정치적인 형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 때문이었다.
- 4.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이라고 믿었던 유대인 군중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sup>10</sup>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11:10)

- 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이신 메시아 아래에 임할)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를 물었다.

<sup>6</sup>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행 1:6)

C.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임

<sup>13</sup> ... 나는 그의 나라 왕위(한글 KJV,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 <sup>16</sup> ...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삼하 7:13-16)

- 1. 이는 다윗이 왕으로 보좌에서 가지는 통치의 권세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가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다.
- 2.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통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았지만, 이 거룩한 약속은 다윗의 보좌가 결국에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보장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울 것이라 맹세하셨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sup>3</sup>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sup>4</sup>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 89:3-4)

- 3.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 천사 가브리엘은 유다에 대한 다윗의 통치가 멈춘 지 몇 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다:

<sup>32</sup> ...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sup>33</sup>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2-33)

- 4. 이 천사 가브리엘의 약속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다윗의 자손이 몇 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었지만 이 권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IV. 다윗 언약의 성취**

A. 다윗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는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다.

- 1.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존재하는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윗의 왕국을 통치할 적법한 다윗의 자손이 있는가?

- 2. 다윗의 왕국과 보좌가 영원히 존재하는가?

이 유대인 메시아(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은 이미 성취되었는가?  
그렇다면 언제 성취되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언제 성취되는가?

첫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안에서 많이 논란이 되며, 둘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V. 메시아의 본질과 임무**

예수님 초림 때의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본질과 하실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이가 아니었기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또한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다윗 언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이 이 메시아의 본질과 하실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 메시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심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자 '자녀'이시기에 완전한 인간이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B. 메시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 (창 22:18)

C. 메시아께서는 승리의 왕이 되신다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 49:10)

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sup>18</sup>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sup>19</sup>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민 24:17-19)

D.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 <sup>7</sup>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 (사 9:6-7)

<sup>5</sup>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사 16:5)

E. 메시아의 시작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분이 되실 것이다.

<sup>1</sup>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sup>2</sup>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 11:1-2)

이새의 줄기 또는 그루터기는 다윗이 베들레헴 언덕에서 초라하게 시작한 것을 말한다. 다윗이 아주 낮은 배경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왕이신 메시아께서는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서 아버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다음 구절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즉,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와 같음)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메시아의 역할 중 하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또는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다.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암 9:11)

F.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며,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눅 1:54-55)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뿌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 우리 조상을 공홀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눅 1:68-75)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25-32)

## VI. 예수님, 메시아 – 다윗의 아들

A.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그분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분이심이 예언되었다.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뿌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눅 1:68-70)

- B.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사야 9:7 절을 인용하며 그녀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으며,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며, 또한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을 설명해주었다.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1-33)**

- C. 예수님 ᵹ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셔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여부와 함께 묶어 두셨으며,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유대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마리아)을 통해 세상에 나오셨다.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 31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맛다다요 그 위는 나단ियो 그 위는 다윗ियो (눅 3:23-31)**

- 2.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ᵹ다윗의 아들ᵹ이라 불렀다 (마 9:27; 15:22; 20:30,31; 21:9; 막 10:47, 48; 눅 18:38, 39).

- 3.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며 유대인이심을 밝히신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계 22:16)**

- 4.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이름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다.

가지 (렘 23:5; 슥 3:8). 이스라엘의 위로 (눅 2:25). 백성의 언약 (사 42:6). 다윗 (렘 30:9). 구원자 (롬 11:26). 이스라엘의 영광 (눅 2:32).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 45:15). 나사렛 예수 (막 1:24; 눅 24:19).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 19:19). 유대인의 왕 예수 (마 27:37). 이스라엘의 임금 (요 1:49). 유대인의 왕 (마 2:2). 어린 양 (계 5:6, 8; 6:16; 7:9-10, 17; 12:11; 13:8; 14:1, 4; 15:3; 17:14; 19:7, 9; 21:9, 14, 22-23, 27).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29). 율법을 세우신 이 (사 33:22). 이방의 빛 (사 42:6). 유다 지파의 사자 (계 5:5). 언약의



사자 (말 3:1). 메시아 (요 1:41). 이스라엘의 전능자 (사 1:24). 야곱의 전능자 (사 49:26). 나사렛 사람 (마 2:23). 다윗의 자손 (계 22:16). 유월절 양 (고전 5:7). 랍비 (요 1:49). 랍오니 (요 20:16, 선생님). 의로운 가지 (렘 23:5). 다윗의 뿌리 (계 5:5; 22:16). 이새의 뿌리 (사 11:10). 샤론의 장미 (아 2:1).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미 5:2). 아브라함의 자손 (갈 3:16). 이스라엘의 목자 (시 80:1). 아브라함의 자손 (마 1:1). 다윗의 자손 (마 9:27)

## VII. 다윗의 왕국의 성격

- A.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만으로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윗 언약의 성취는 그분이 현재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며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약속들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 B. 우리는 다윗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예수님은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다.
  2.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다. 따라서 다윗의 집은 영원히 존재한다.
  3.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 태어나셨고,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 C.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언약의 주요 논점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온 땅을 가득 채우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이미 다 성취하셨는가?

<sup>7</sup>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 (사 9:7)

<sup>7</sup>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 (KJV 흠정역, 사 9:7)

<sup>44</sup>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4)

<sup>14</sup>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4)

- D.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명확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다르게 설명하지 않는 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들이 항상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와 왕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사 9:6-7)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고 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 다윗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통치하심으로 다윗의 통치를 현재 시행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이들은 왕국,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지금 충만하게 성취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오로지 영적인 나라가 된다. 이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나 왕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윗의 보좌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동일한 보좌라고 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다윗의 왕국은 문자적으로 정치적인 형태를 띠는 왕국이며,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 땅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언약을 미래에 성취하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1,000 년 동안 문자적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왕국을 세우셔서 새 땅까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본다.

- E.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미래에 현재의 이 땅에 임할 물리적인 왕국을 통치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VIII. 예수님께서서는 미래에 이 땅에 있을 실제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계셨다**

- A. 유대인들은 항상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특정 지역에,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왕국을 기다려왔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서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 한 아기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앉으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며, 메시아께서 세우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될 것이다. (“The Church and the Jews – the Biblical Relationship” Dan Gruber p. 72)

B. 예수님께서서는 이 왕국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를 확장시키셨다.

1.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다: **6 ...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 1:6)**
2.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이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단지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라는 잠시 동안 한 민족에 임하는 정치적인 형태가 아닌, 영적이며 전 세계적인 형태가 될 예정이었다.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쳐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7-8)**

3. 물론 유대인들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 2:3-4; 암 9:11; 숙 8:20-23 절 등).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야만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자신들을 실제로 구원하실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눅 1:71-72)**

4.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한 나라를 통치하실 분으로 오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그리고 성경적이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나라에게 약속된 것을 **바꾸지** 않으셨고,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을 **더하셨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이 땅에 임할 물리적인 왕국이 회복될 때에 이를 유업으로 받을 이들은 왕의 통치에 영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될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다.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sup>13</sup>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sup>14</sup>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눅 19:11-14)

- 5. 1 세기의 유대인들이 놓쳤던 부분은 오늘날의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즉 이 나라가 영적이며 전 세계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었다. 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부분, 즉 이 나라가 실제적인 통치 형태를 띠며 한 민족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초림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를 놓쳐버렸다.
- 6.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정 반대의 **반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나라를 영적이고 전 세계에 임할 나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실제적인 형태로 임할 나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창조계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헬라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리를 온 창조계 위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C. 다윗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그 나라이거나 그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Gruber p.162).**

- 1. 다윗의 왕국은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지리적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왕국이었으며, 메시아의 왕국의 성취 또한 이와 동일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다윗의 왕국 (또는 통치의 권세가 드러나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였다. 다른 나라들이 다윗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거나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지만, 다윗이 통치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왕을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왕국은 점점 자라나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때와 같이 모든 열방의 머리가 될 것이다.

4.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 영원히 한 나라로써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과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자손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머리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sup>12</sup>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 9:11-12)

<sup>2</sup>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sup>3</sup>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sup>4</sup>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 2:2-4)

<sup>12</sup>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sup>13</sup>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슥 6:12-13)

<sup>20</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sup>21</sup>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sup>22</sup>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sup>23</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슥 8:20-23)

<sup>8</sup>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sup>9</sup>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활을 것이며 <sup>10</sup>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sup>11</sup>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 72:8-11)

<sup>6</sup>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sup>7</sup>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sup>8</sup>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sup>9</sup>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 2:6-9)

<sup>1</sup>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sup>2</sup>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sup>3</sup>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sup>4</sup>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sup>5</sup>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sup>9</sup>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sup>10</sup>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11:1-10)

<sup>9</sup>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슌 14:9)

- 5. 위의 모든 구절들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 아래에서 현재의 땅에 의가  
충만하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IX. 다윗의 보좌의 성격**

다윗의 보좌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존재했다. 따라서 메시아의 보좌 또한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 A. 많은 성경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를 땅에 임한 주의 보좌로 지칭하고 있다.

<sup>23</sup>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대상 29:23)

<sup>23</sup>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에 앉으니 번영을 이루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대상 29:23, 한글 KJV)

- B. 다윗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여호와의 나라 왕위 (주의 왕국의 보좌, 한글 KJV)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4</sup>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sup>5</sup>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대상 28:4-5)

- C.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그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땅에 임한 보좌와 왕국)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sup>8</sup>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KJV 흠정역,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자신의 왕좌에 앉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대하 9:8)

- D.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셨음을 선포하셨다.

<sup>17</sup>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 (렘 3:17)